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Aug; 11(8): 143-157

창업 환경 및 인식이 사업실패부담감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오상훈*, 하규수**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교신저자)**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Start-up Environment and Self-efficacy Mediated by Fear of Business Failure

Sang-Hoon Oh*, Kyu-Soo Ha**
Korea Labor Institute, Visiting Fellow*,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Professor(Corresponding Author)**

요 약 본 논문은 창업과 관련하여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던 개인특성 접근법 보다는 환경론적 접근법에 의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업실패부담감이 창업환경과 창업의지 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창업자인 대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35명의 응답을 표본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객관적 창업환경과 잠재 창업가의 자신감 혹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으로 정의되는 주관적 환경인식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객관적 창업환경 및 주관적 환경인식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사업실패부담감이 매개변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셋째로, 본 논문에서 객관적 창업환경의 설명변수로 채택한 보육제도 여건도 향후 창업의지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 창업의지, 창업환경, 자기효능감, 사업실패부담감, 보육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ly, to find out the factor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potential entrepreneurs, and secondl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ive start-up environment and subjective recognition of start-up environmen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r this study, investigation has been done to find out if fear of business failure, that is notoriously high among Koreans, acts as an influential factor between objective start-up environment/subjective recognition of start-up environmen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data is collected from 335 respondents comprised of college students and adults who are interested in starting their own busines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Objective start-up environment and subjective recognition of start-up environment, which is self-efficacy, have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2) Fear of business failur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ive start-up environment/subjective recognition of start-up environmen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3) Child-care system, as an explain variable in the objective start-up environment in this study,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of entrepreneurial commitment.

Key Words : Entrepreneurial Intention, Start-up Environment, self-efficacy, Fear of Business failure, Child-care System

Received 16 July 2013, Revised 20 August 2013
Accepted 20 August 2013
Corresponding Author: Kyu-Soo Ha(Hoseo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Professor)
Email: ksh@hoseo.edu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t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 론

한 국가의 장기성장률은 생산성 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현재 세계에서 최저수준의 출산율 지속으로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성 주도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 있다. 한국기업들은 과거 투입주도형에서 효율주도형으로 이제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업가들도 기존의 모방자(follower)에서 혁신자(innovator)로서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기업들의 경우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R&D투자를 통한 혁신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성장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GEM(2012) 서베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활동지수는 조사대상 69개국 가운데 31위로 중위권 수준에 위치해 있는데 이나마도 지난 2000년 초 이래 지속적인 하향화 추세를 보여 왔다[21]. 또한 글로벌 회계법인 Ernst&Young(2011)조사에서 사업실패를 배우는 기회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24%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여 G20 국가 중 이탈리아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하여 잠재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9]. 이러한 현상은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또는 재도전 등의 유기적인 기업생태계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인들의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 재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현상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할 수 있다. 아울러 2000년대 초 벤처버블 붕괴 이후 벤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과 코스닥시장의 침체 및 신뢰성 저하, 내수시장 침체 지속, 높은 창업실패율 지속, 두 차례의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기업가정신이 크게 쇠퇴하면서 청년층은 창업을 기피하고 국가기관, 대기업, 공기업 등 안정 성향 직장으로의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세계적 기업가정신 및 창업정책 조사기관인 GEM의 연구결과[1]에 의하면 초기 창업활동지수와 국가경제발전 간에 U자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U자형 커브는 개발도상국 시기에는 신규창업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1인당 GDP가 증가하다가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초기 창업활동은 최저점에 머물게 된다. 한국은 현재 U자형 곡선의 최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1] 명실 공히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기 창업활동지수가 다시 상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지식기반 시대에 창업 활성화가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 성장엔진이 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 정부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 벽을 허문 경계선에서 창조의 꽃을 피우는 창조경제 즉 융합의 터전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경제 활성화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즉 최근 대외경제 환경의 악화, 국내 잠재성장률 둔화, 성장과 고용 간의 연계성 약화 등으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과 기술개발 활성화는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뿐 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 분배구조 개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잠재 창업자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객관적 창업환경과 주관적 환경인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사업실패부담감이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2. 선행연구 개관

2.1 창업의지 결정이론

창업의지는 예비 창업가들이 창업실행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 Fishbein and Ajzen(1975)은 의지는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라고 하였다[20]. Krueger and Carsrud(1993)는 창업의지는 창업에 대한 행위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며 창업이라는 긴 과정의 첫 단계이라고 하였다[29].

잠재창업가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요인으로는 크게 내부요인인 개인적 특성요인과 외부환경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개인적 특성요인으로는 성별, 나

1) 김주미 외(2011) 재인용

이, 학력, 소득, 가족 창업력, 사회적 지원세력인 인적네트워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선천성 또는 후천성 여부에 의해 구분하자면 선천적으로 타고 나오는 인적특성 요인으로 성별, 나이, 가족 창업력 등을 들 수 있고 후천적 인적특성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소득, 인적네트워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환경 요인도 경제적 환경요인, 제도적 환경요인, 사회적 인식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환경요인으로는 창업성공률, 경기상황, 고용 안정성 등을 들 수 있고 제도적 환경요인으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인프라제도, 보육제도 등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 요인은 창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지지도는 그 당시 사회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라 할 수 있다.

Reynolds(1992)는 창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제적 환경특징, 개인의 삶이나 경력환경 특징, 개인의 성향 등을 제시하였다[34]. Gnyawali and Fogel(1994)은 창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분석에 초점을 두어 정부정책, 사회경제적 조건, 창업 및 경영기술, 재무적 지원, 비재무적 지원 등의 요인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22].

Martin(1984) 연구에서 창업의지 결정요인으로 개인적 환경요인인 사회적 단절, 심리·육체적 성향, 전시효과, 가족요인, 사건 예측 등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31]. Greenberger and Sexton(1988)은 Martin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인적 환경 요인으로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요인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고 창업은 개인의 특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23]. Cuervo(2005)는 창업환경 요인으로 크게 경제적 환경요인, 제도적 환경요인으로 나누어 거시경제적 환경, 산업특성, 재무적 환경, 지리적 환경과 법·제도적 시스템, 교육·과학기술 시스템, 문화와 가치로 구분하였다[18]. Smeltzer and Fann(1989) 및 Naffziger et al(1994) 등은 교육수준, 사회적 창업지원네트워크, 창업에 대한 사회적 태도, 시장의 경제적 상황, 재무자금의 활용성 및 창업인프라 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36][32]. 그리고 Luthje and Frank(2003) 연구에서는 창업에 대한 적대적 환경일수록 개인의 창업에 대한 태도와 관계없이 창업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30].

종합해 보면 잠재창업가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내부요인인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경제적 환경, 제도적 환경, 사회적 인식 등을 반영한 창업성공률, 경기상황, 보육제도, 창업지원제도, 창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고용사정 등 외부환경 여건 등이 잠재창업가들의 창업의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2 객관적 창업환경과 창업의지

본 논문에서는 잠재창업가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환경 여건을 객관적 창업환경으로 정의하고 창업성공률, 경기상황, 보육제도, 창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고용안정성, 창업지원제도 등을 설명변수로서 고려하고자 한다.

2.2.1 창업성공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낮은 창업성공률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는 잠재 창업가들의 창업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7년 이후 사업자등록 신규사업자 기준 창업기업은 100만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07~2011년 동안 58.6%가 창업 3년 이내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사업자 17.3%는 1년 미만, 41.3%는 1~3년 미만에 폐업하였다. 1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사업자는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시장 공급포화 상태에서 낮은 창업성공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계층의 경우 금전적 이유로 절반인 약 46% 정도가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대다수가 1인 기업으로 서비스업에 몰려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퇴근 베이비부머들의 대량 퇴직으로 인해 자발적 기회추구형 창업보다 비자발적인 생계형 창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에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다.

2) 소상공인진흥원(2010)

2.2.2. 경기상황

경기상황은 잠재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Knight(1921)는 실업자들이 많고 새로운 직장을 찾기 어려울 때 창업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GEM조사에 따르면 창업초기활동지수(창업한지 3년 6개월 미만)가 높은 국가일수록 실업률도 높게 나타나 사람들이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반면에 경기침체는 개인적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경기상황 악화 또는 저성장 기조 지속으로 인한 고용사정 악화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질 경우 비자발적인 생계형 창업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경기요인으로 반사적으로 비자발적인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 다산다사(多産多死)형의 기업생태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2.2.3 보육제도

보육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는 거의 전무한 편이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시설 미비 요인은 특히 여성의 창업 및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실태조사[3]에 의하면 민간 어린이집이 보육하는 아동 중 43.4%가 맞벌이 부부 자녀인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54.7%로 나타났다. 현 영·유아보육법에는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에게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히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이런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맞벌이 부모 자녀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 보육시설 미비한 환경은 특히 여성 잠재 창업자 또는 청년층의 창업의지를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2.4 창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창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환경 요인 중 하나는 창업가 또는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이다. 창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인식, 아울러 기업가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적 지지도는 창업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개인이 경력선택으로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Gnyawali and Fogel(1994)은 창업 및 기업가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적 인식은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성에 영향을 주어 개인이 경력선택으로서 창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나, 반대로 창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지지도는 창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다[22].

서정해(2006)의 한·중·일 대학생 창업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가로서의 직업을 높게 평가하는 비율이 중국 27.3%, 일본 29.5%, 한국 22.8%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창업을 하지 않겠다는 창업의향 질문에서 한국의 경우 24%로 나타나 중국의 11%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3].

이러한 기업 또는 창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지지도는 이후에 논의할 사업실패부담감이 한국의 경우 여타국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난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로 추론된다.

2.2.5 고용 안정성

고용 안정성 여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경기상황에 따른 고용사정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에 따른 직업 불안정 즉 근무형태 변화에 따른 영향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경기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취업률 사정이 악화되어 반사적으로 창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주헌(2008)은 동기부여이론에 의한 창업의사결정모형을 거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창업율은 취업률과 부(-)의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고용 불안정에 의해 임금수준이 낮아 생활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업활동의 주된 동기는 경제적 욕구와 같은 하위욕구의 충족에 있다고 하였다[7]. 아울러 정규직보다 한시적(기간제, 비기간제) 및 비전형(용역, 파견, 일일근로, 특수형태근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늘어나는 경우 취업대신 창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론된다. 소상공인진흥원조사(2010) 결과[5]에서와 같이 시장포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서 취업사정 악화로 인해 특히 시니어 층에서 취업의 대안으로서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을 반증해 주고 있다.

3) 중앙일보 2013년 5월 29일자 보도참고

2.2.6 창업지원제도

창업교육 및 정부의 창업절차 과정에서의 지원제도 등도 잠재창업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조병주(1998) 연구에서는 창업자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며 후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창업교육은 무의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0]. 그러나 한정화· 이명자(1998)는 창업교육은 교육을 받은 학습자에게 창업에 대한 자신감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13]. Clark et al(1984) 연구에서도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촉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17]. 다시 말해 창업가 기질은 타고난다는 개념 보다는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 활동 및 창업 성공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2.3 주관적 환경인식과 창업의지

주관적 환경인식은 만약 잠재창업자들이 창업을 전제로 하였을 때 부딪힐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인식하는 심리적 특성요인으로서 다른 말로 자신감(self-efficacy)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자신감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잠재창업가의 마음가짐이며 자신의 능력으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용기이다. 다시 말해 자신감은 창업자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 환경에 대한 당사자의 심리적 특성이 가미된 주관적인 환경인식으로 파악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자신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있어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Harter(1982)는 자신감을 환경을 지배하려는 선천적 욕구로서의 유능성(competence) 동기로 보았으며[24], Bandura(1977)는 일정한 과제와 상황에서 가지는 상태에서의 자신감을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15]. Vealey(1986)는 스포츠 상황에서와 같은 개인 특유의 자신감으로 스포츠 자신감(sports confid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37]. 이지우(2000)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즉 자신감은 목표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통제력에 대한 속성(attribution)에 근거하여 평가된다[8].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요한 과업을 익히고 숙달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윤방섭(2004)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어떤 특정한 과업의 수행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6].

자기효능감 즉 자신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는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14]. 즉 목표행동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perceived behavioral control) 등 세 가지 핵심적인 태도가 행동의지를 결정되며 이 가운데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목표행동을 실행할 수 있을 가능성에 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 요인에 의해 자기효능감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Krueger and Brazeal, 1994). Krueger et al(2000)은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 즉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창업의 상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도전과 위험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통제할 수 있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므로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27].

한편 한정화(2012)는 사업에 따르는 위험에 의한 실패사례를 선택의 함정, 시장의 함정, 관리의 함정, 태도의 함정, 관계의 함정, 불운의 함정 등 일곱 가지 함정으로 나누어 파악한 바 있다[1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잠재창업자들의 자신감을 총체적인 변수로 파악하기보다 잠재창업가가 실제 창업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여러 과정에서의 실패사례를 감안하여 설명변수로서 추가하고자 하였다. 즉 자신감을 선택업종 자신감, 마케팅 능력 자신감, 자금조달 능력 자신감, 사업운용 자신감 등 네 가지 부문으로 세분화하였다.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막연하게 하나의 총체적인 변수에 의해 측정하는 것보다 잠재창업자가 창업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게 될 업종선택, 마케팅 능력, 자금조달능력, 사업운용 등의 부문에서의 자신감 측정 등으로 나누어 구체화하여 설문조사하였을 경우 심리적 특성 요인으로서의 자신감 측정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4 사업실패부담감과 창업환경 및 창업의지

사업실패 부담감은 창업이전 잠재 창업자들의 불확실성(uncertainty) 및 위험(risk) 요인에 직면하면서 창업의지 형성 과정에서 의지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되

며, 창업 이후에도 사업수행 시 지속적으로 자신감을 훼손시켜 기업가정신의 본질인 위험감수 성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성창수(2011) 연구에서도 창업교육 수료이후 창업의도는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창업실행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심리적 부담감 등으로 창업의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4].

Boyd and Gumpert(1983)는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결과에서 약 55~65%의 기업가들이 심한 불면증, 허리통증, 소화불량, 두통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가들이 겪는 고통은 고독감, 일에 대한 함몰, 여러 인간관계, 성취에 대한 과욕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정대용(1999)은 새로 시작한 사업에서의 실패체험은 당혹감(embarrassment)으로 연결되며 이는 사업의욕이나 사업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16]. 특히 사회적 위신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위험이 높을수록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며 실패부담감이 있는 경우 작은 창업활동도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Shapero and Sokol(1982)는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는 기업가의 위험감수 성향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며 위험감수는 사업으로 인한 여러 스트레스를 개인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35]. Redding(1993)은 창업결정에 있어 성공으로 얻어지는 신분상승(prestige)과 사업실패로 잃게 되는 체면손상(shame)이라는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33]. 하규수(2012)는 창업에서 실패한 이후 기업들의 회생을 돕는 비용보다는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창업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창업실패 후유증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11].

글로벌 회계법인인 Ernst&Young 조사(2011)에 의하면 G20 국가의 18~40세 청년 기업가 대상으로 사업실패를 사회에서 배우는 기회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은 단지 24%만이 'Yes'로 응답하여 전체 20개국 평균 39%에 비해 크게 낮았고 국가별 순위에서도 최하위권을 나타냈다[19]. 이와 같이 한국의 기업가들에게 유독 사업실패 부담감이 크게 나타난 것은 기업가가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부담감과 기업실패자에 대한 재기 기회가 차단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측면에서의 객관적 부담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주관적 부담감의 경우 국별 조사에서 보면 대외적인 위신 및 체면을 중시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사업실패 부담감이 대체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시아적 특유의 문화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다음으로 객관적 실패부담감으로서 특히 미국의 경우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경험축적으로서의 귀중한 자산으로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기업인에 대한 관행적인 은행의 연대보증 요구, 과거 실패한 기업인들의 파산사례 등으로 한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라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잠재창업자 또는 기업인들의 사업실패 부담감이 유독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객관적 창업환경 및 주관적 환경인식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있어 독립변수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파악함과 동시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사업실패부담감이 매개변수로서 유의한지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객관적 창업환경 및 주관적 환경인식과 창업의지 및 사업실패부담감 등과 관련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Ⅰ : 객관적 창업환경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 : 주관적 환경인식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Ⅲ : 객관적 창업환경은 사업실패부담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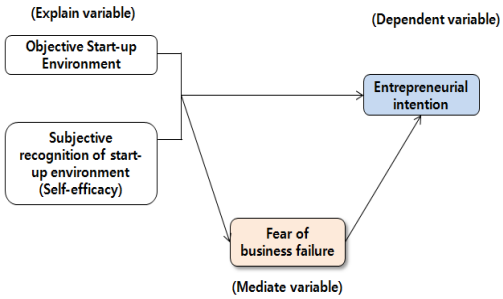
가설 Ⅳ : 주관적 환경인식은 사업실패부담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Ⅴ : 사업실패부담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Ⅵ : 사업실패부담감은 객관적 창업환경과 창업의지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Ⅶ : 사업실패부담감은 주관적 창업인식과 창업의지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3.2 측정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Fig. 1] Hypothesis Model

본 연구에서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문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관적 창업환경은 잠재창업가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환경 여건으로 정의하고 창업성공률, 경기상황, 보육제도, 사회적 지지도, 고용안정성, 창업지원제도 등 총 2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환경인식(Self-efficacy)은 잠재창업가들이 창업을 전제로 하였을 경우 부딪힐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인식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선택업종 자신감, 마케팅능력자신감, 사업조달능력자신감, 사업운용자신감 등 총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업실패부담감은 창업이전 잠재창업가들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에 직면하면서 창업의지 약화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6문항, 창업의지는 예비창업가들의 창업실행으로 가는 첫 관문으로 정의하고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객관적 창업환경 및 주관적 환경인식과 창업의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잠재적 창업자라고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을 조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였고, 2013년 5월 1일부터 15일간 설문지법을 통해 서울지역 대학생, 회사원, 사업가, 무직 등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설문하는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배포한 설문지는 총 350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된 15부를 제외한 335명의 응답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지는 개관적 창업환경 21문항(창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3문항, 고용사정 3문항, 경기상황 3문항, 보육제도 3문항, 창업성공률 3문항, 창업지원제도 6문항), 주관적 환경인식 12문항(선택업종 자신감 3문항, 마케팅 능력자신감 3문항, 자금조달 능력 자신감 3문항, 사업운용 자신감 3문항), 사업실패부담감 6문항, 창업의지 4문항 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10문항 등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 응답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분석방법은 측정된 각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및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문문항이 연구대상 변수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사전검사 분석에서 창업성공률 및 경기상황 문항에서 신뢰도와 타당성을 결여한 각 1문항씩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측정변수 간의 관계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은 설명변수의 상대적인 영향계수 뿐만 아니라 독립변수와 독립변수 간 매개변수의 매개효과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실증분석 결과

4.1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특성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다음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는 총 335명이며 성별은 남자(76.4%), 여자(23.6%)로 나타났고, 연령은 평균 37.67세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24.2%), 전문대 졸업(11.9%), 대학 졸업(47.8%), 대학원 이상(16.1%)으로 나타났고, 혼인여부는 기혼(55.2%), 미혼(44.8%)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자영업(7.8%), 사무직(46.3%), 생산직(3.0%), 전문직(13.7%), 학생(19.7%), 판매서비스, 기타(9.6%)로 나타났고,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하(31.9%), 200~400만원(37.9%), 400만원 이상(30.1%)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Property	Group	Frequency	Ratio(%)
Gender	Male	256	76.4
	Female	79	23.6
Age	Average: 37.67, S.D: 13.32 (Range : 17-76)		
Education level	High school	81	24.2
	Vocational College	40	11.9
	University	160	47.8
	Graduate school	54	16.1
Marital Status	Married	185	55.2
	Single	150	44.8
Occupation	Self-employed	26	7.8
	Office job	155	46.3
	Manufacture	10	3.0
	Professional job	46	13.7
	Student	66	19.7
	Sales service, etc	32	9.6
Monthly Income	under 2M won	107	31.9
	2M~4M won	127	37.9
	over 4M	101	30.1
Total		335	100.0

응답자의 경력 특성을 살펴본 결과가 <Table 2>와 같다. 직장경력은 있음(79.4%), 없음(20.6%)으로 나타났고, 창업경력은 있음(22.1%), 없음(77.9%)으로 나타났으며, 부모형제 창업경험 유무는 있음(46.9%), 없음(53.1%)으로 나타났고, 주변 멘토 및 지원자 등 네트워크 유무는 있음(46.0%), 없음(54.0%)으로 나타났다.

〈Table 2〉 Career Characteristics of Sample

Property	Group	Frequency	Ratio(%)
Working Career	Yes	266	79.4
	No	69	20.6
Entrepreneurial Experience	Yes	74	22.1
	No	261	77.9
Family Entrepreneurial Experience	Yes	157	46.9
	No	178	53.1
Network	Yes	154	46.0
	No	181	54.0
Total		335	100.0

4.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4.2.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객관적 창업환경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Objective Start-up Environment

Questionnaire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Start-up success rate01	0.800	-0.098	0.241	0.115	0.029	0.206
Start-up success rate02	0.825	0.167	0.113	0.033	0.054	0.044
Business cycle condition01	0.108	0.824	0.053	0.104	0.075	0.151
Business cycle condition02	-0.018	0.862	0.029	0.091	0.099	-0.001
Child-care system01	0.286	0.077	0.661	0.062	-0.168	0.188
Child-care system02	0.125	-0.033	0.844	0.072	-0.024	0.087
Child-care system03	0.032	0.086	0.839	0.091	0.079	-0.025
Start-up supporting system01	0.097	0.146	-0.007	0.724	0.005	0.104
Start-up supporting system02	0.008	0.088	0.024	0.883	0.075	0.039
Start-up supporting system03	-0.021	0.087	-0.014	0.858	0.080	0.025
Start-up supporting system04	0.075	0.087	0.000	0.843	0.143	-0.092
Start-up supporting system05	-0.027	-0.076	0.305	0.594	0.164	0.157
Start-up supporting system06	0.109	-0.092	0.269	0.633	0.140	0.238
Social support on start-up01	0.254	0.014	-0.046	0.105	0.690	0.121
Social support on start-up02	-0.062	0.049	-0.090	0.104	0.835	0.074
Social support on start-up3	-0.128	0.230	0.139	0.283	0.574	-0.176
Job market condition01	0.103	-0.027	-0.046	0.096	0.251	0.703
Job market condition02	-0.041	-0.018	0.349	0.114	-0.104	0.683
Job market condition03	0.222	0.269	0.038	0.055	-0.059	0.699
Eigenvalue	1.606	1.662	2.247	3.680	1.712	1.713
Variance(%)	8.451	8.745	11.828	19.367	9.012	9.017
Cumulative Variance(%)	8.451	17.195	29.023	48.391	57.403	66.419
Cronbach's α	0.670	0.718	0.761	0.870	0.696	0.679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Self-efficacy

Questionnaire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Category of business selection confidence01	0.701	0.108	-0.018	0.416
Category of business selection confidence02	0.776	0.133	0.148	0.122
Category of business selection confidence03	0.779	0.253	0.004	0.073
Marketing confidence01	0.182	0.791	0.085	0.294
Marketing confidence02	0.145	0.857	0.104	0.116
Marketing confidence03	0.195	0.751	0.176	0.176
Financing confidence01	0.337	0.135	0.537	0.479
Financing confidence02	0.059	0.149	0.895	0.147
Financing confidence03	-0.027	0.106	0.884	0.049
Management confidence01	0.169	0.124	0.311	0.745
Management confidence02	0.384	0.260	-0.111	0.666
Management confidence03	0.062	0.253	0.135	0.775
Eigenvalue	2.090	2.217	2.070	2.177
Variance(%)	17.419	18.471	17.250	18.139
Cumulative Variance(%)	17.419	35.890	53.139	71.278
Cronbach's α	0.729	0.813	0.783	0.730

요인1은 창업성공률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창업성공률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2는 경기상황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경기상황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3은 보육제도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보육제도라 명명하였으며, 요인4는 창업 지원제도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창업 지원제도라 명명하였으며, 요인5는 창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창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라 명명하였으며, 요인6은 고용사정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고용사정이라 명명하였다. 요인적재치는 모두 0.5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누적설명력이 66.4%이며, 신뢰도 검증결과 값은 0.670~0.870으로 나타났으며, 객관적 창업환경 전체의 신뢰도는 0.804로서 별 무리 없이 수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관적 환경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요인1은 선택업종 자신감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선택업종 자신감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2는 마케팅능력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마케팅능력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3은 자금조달능력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자금조달능력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4는 사업운용 자신감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사업운용 자신감이라 명명하였다. 요인적재치는 모두 0.5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누적설명력이 71.3%이며, 신뢰도 검증결과 값은 0.729~0.813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환경인식 전체의 신뢰도는 0.853으로 별 무리 없이 수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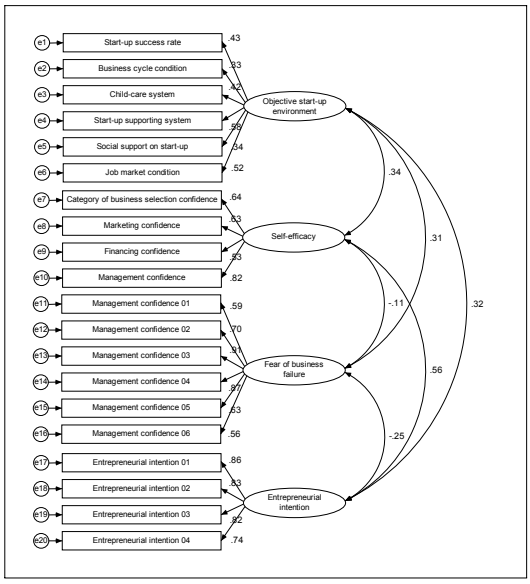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Fear of Business failur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Questionnaire	Factor1	Factor2
Fear of business failure01	0.666	-0.108
Fear of business failure02	0.754	-0.191
Fear of business failure03	0.865	-0.083
Fear of business failure04	0.846	-0.071
Fear of business failure05	0.768	-0.024
Fear of business failure06	0.704	-0.094
Entrepreneurial intention01	-0.103	0.878
Entrepreneurial intention02	-0.091	0.861
Entrepreneurial intention03	-0.129	0.869
Entrepreneurial intention04	-0.093	0.819
Eigenvalue	3.606	3.008
Variance(%)	36.057	30.084
Cumulative Variance(%)	36.057	66.141
Cronbach's α	0.858	0.886

본 연구의 사업실패부담감과 창업의지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요인1은 사업실패부담감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사업실패부담감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2는 창업의지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창업의지라 명명하였다. 요인적재치는 모두 0.5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누적설명력이 66.1%이며, 신뢰도 검증결과 값은 0.858~0.886으로 별 무리 없이 수용되었다.

4.2.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한 결과는 [Fig. 2]에 제시되어 있다.



[Fig. 2]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of Hypothesis Model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평가 지표인 χ^2(카이자승치), χ^2/df, RMR(잔차제곱근), GFI(기초 적합도지수), AGFI(조정된 적합 지수), CFI(비교적합지수), NFI(표준적합지수), TLI(터커 루이스지수), RMSEA(근사원소 평균자승 오차)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지수를 살펴보면 χ^2/df=4.140이며, GFI, CFI, NFI, TLI가 0.90이상으로 나타났고, RMSEA= 0.097로 0.1이하로 수용범위가 대체적으로 기본준치를 만족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평균분산추출(A.V.E)과 개념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Table 6>와 같다.

객관적 창업환경의 평균분산추출(A.V.E)은 0.831, 개념신뢰도가 0.966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환경인식의 평균분산추출(A.V.E)은 0.821, 개념신뢰도가 0.947, 사업실패부담감의 평균분산추출(A.V.E)은 0.807, 개념신뢰도가 0.960, 창업의지의 평균분산추출(A.V.E)은 0.938, 개념신뢰도가 0.984로 나타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측정변인들을 이용하여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분석을

〈Table 6〉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on Variable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ie-nt	S.E.	C.R	A.V.E	Construct reliability
Objective start-up environment	→	Start-up success	0.429			0.831	0.966
Objective start-up environment	→	Biz. cycle condition	0.334	0.027	4.078***		
Objective start-up environment	→	Child-care system	0.418	0.019	4.679***		
Objective start-up environment	→	Start-up support sys.	0.584	0.021	5.409***		
Objective start-up environment	→	Social support on start-up	0.339	0.078	4.122***		
Objective start-up environment	→	Biz. cycle condition	0.524	0.100	5.213***		
Self-efficacy	→	Category of business selection confidence	0.639			0.821	0.947
Self-efficacy	→	Marketing confidence	0.633	0.114	9.165***		
Self-efficacy	→	Financing confidence	0.527	0.133	7.926***		
Self-efficacy	→	Management confidence	0.820	0.136	10.350***		
Fear of business failure	→	Fear of business failure01	0.592			0.807	0.960
Fear of business failure	→	Fear of business failure02	0.704	0.144	10.228***		
Fear of business failure	→	Fear of business failure03	0.906	0.134	11.893***		
Fear of business failure	→	Fear of business failure04	0.867	0.148	11.660***		
Fear of business failure	→	Fear of business failure05	0.634	0.162	9.499***		
Fear of business failure	→	Fear of business failure06	0.565	0.163	8.702***		
Entrepreneurial intention	→	Entrepreneurial intention01	0.857			0.938	0.984
Entrepreneurial intention	→	Entrepreneurial intention02	0.833	0.059	18.167***		
Entrepreneurial intention	→	Entrepreneurial intention03	0.822	0.056	17.829***		
Entrepreneurial intention	→	Entrepreneurial intention04	0.742	0.060	15.398***		

Note: * p<0.05, ** p<0.01, *** p<0.001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4.2.3 상관분석

본 연구 변수들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Table 7>과 같다. 객관적 창업환경은 주관적 환경인식(r=0.221, p<0.001), 사업실패부담감(r=0.133, p<0.05), 창업의지(r=0.292, p<0.001)에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환경인식은 창업의지(r=0.461, p<0.001)에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실패부담감(r=-0.143, p<0.01)에 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실패부담감은 창업의지(r=-0.240, p<0.001)에 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Correlation Matrix

	AVG.	S.D	1.start-up environment	2.Self-efficacy	3.Fear of business failure	4.Entrepreneurial intention
1	3.64	0.40	1			
2	3.51	0.51	0.221***	1		
3	3.84	0.65	0.133*	-0.143**	1	
4	3.10	0.86	0.292***	0.461***	-0.24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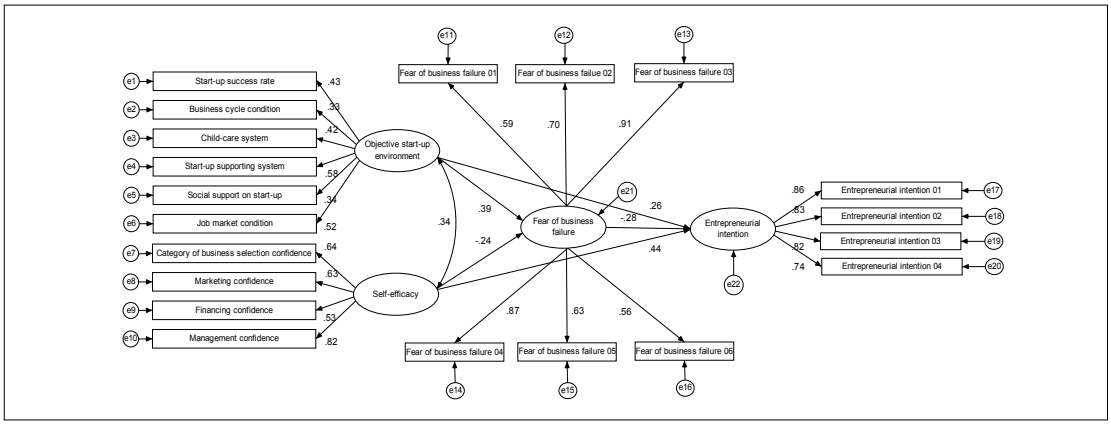
주: * p<0.05, ** p<0.01, *** p<0.001

4.3 가설검증 및 결과해석

4.3.1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해 전반적인 연구모형의 적합도 모수들을 추정하였다. 구조방정식의 모수추정을 위해 AMOS Version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모수추정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객관적 창업환경, 주관적 환경인식, 사업실패부담감, 창업의지 간의 인과모형을 도식화하면 [Fig. 3]과 같다.

본 연구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2/df=4.140이며, GFI, CFI, NFI, TLI가 0.90이상으로 나타났고, RMSEA=0.097로 0.1이하로 수용범위가 대체적으로 기준치를 만족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도 평가기준을 충족시키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합도 평가 결과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분석을 토대로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8>과 같이 객관적 창업환경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Ⅰ이 지지되었으며(p<0.01), 주관적 환경인식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Ⅱ가 지지되었다(p<0.001). 객관적 창업환경은 사업실패부담감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Ⅲ이 지지되었으며(p<0.001), 주관적 환경인식은 사업실패부담감에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Ⅳ가 지지되었다(p<0.01). 사업실패부담감은 창업의지에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Ⅴ가 지지되었다(p<0.001).



[Fig. 3] Path analysis of Hypothesis Model

〈Table 8〉 Path analysis and Hypothesis test of Model

Hypo.	Path	Path coefficient	S.E	Value	Result
Ⅰ	Objective start-up environment→Entrepreneurial intention	0.259	0.233	2.978**	Adopt
Ⅱ	Self-efficacy → Entrepreneurial intention	0.443	0.154	6.002***	Adopt
Ⅲ	Objective start-up environment→ Fear of business failure	0.389	0.135	3.812***	Adopt
Ⅳ	Self-efficacy → Fear of business failure	-0.242	0.078	-3.208**	Adopt
Ⅴ	Fear of business failure → Entrepreneurial intention	-0.279	0.130	-4.345***	Adopt

Note : * $p<0.05$, ** $p<0.01$, *** $p<0.001$

4.3.2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Hair et al.(2006)의 연구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25].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경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경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경로는 예측된 방향에 단일 요인으로 모두 유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매개효과가 있다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경로는 매개변수가 고려되는 조건에서 비유의적으로 나타나면 완전매개(full mediation)라 하고, 모든 경로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나면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라고 한다(배병렬, 2005)[2].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조건 모두를 충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직간접효과는 다음 <Table 9>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9〉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 Latent variable[1)]

Effect		Fear of business failure	Entrepreneurial intention
Objective start-up environment	Total effect	0.389 (0.012)	0.150 (0.108)
	Direct effect	0.389 (0.012)	0.259 (0.009)
	Indirect effect		-0.109 (0.008)
Self-efficacy	Total effect	-0.242 (0.015)	0.511 (0.016)
	Direct effect	-0.242 (0.015)	0.443 (0.032)
	Indirect effect		0.068 (0.009)

Note: 1) ( ) : bootstrap p-value

본 분석결과 객관적 창업환경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경로에서 사업실패부담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Ⅵ이 지지되었으며, 주관적 환경인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경로에서 사업실패부담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Ⅶ이 지지되었다.

5. 결 론

본 논문은 창업과 관련하여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던 개인특성 접근법 보다는 환경론적 접근법에 의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창업과 관련하여 즉 창업자 개인적 특성 요인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 연구는 결과론적인 해석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며 인과관계를 오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환경 측면을 객관적 창업환경과 잠재창업자의 심리특성이 반영된 주관적 환경인식으로 나누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특히 한국인들에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업실패부담감이 창업환경과 창업의지 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객관적 창업환경과 잠재 창업가의 자신감 혹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으로 정의되는 주관적 환경인식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로계수 크기로 판단해 볼 때 객관적 창업환경보다 주관적 환경인식이 창업의지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객관적 창업환경 요인들 보다는 잠재 창업가들의 심리특성이 창업의지 형성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창업지원 인프라는 선진국에 비해 뒤지지 않은 수준이나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안정성 추구의 사회분위기로 인해 대기업 종사자를 성공기준으로 보는 풍토, 창업으로 성공하려는 사람을 인정 안하는 사회분위기 등도 잠재 창업가들의 자신감을 꺾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객관적 창업환경 및 주관적 환경인식과 창업의

지 간의 관계에서 사업실패부담감이 매개변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어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잠재 창업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가들의 사업실패부담감이 유독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아시아인 특유의 위신과 체면 문화에도 기인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업실패를 인생실패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언론[4]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창업성공 가능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창업기업이 살아나기 힘든 불공정거래 관행(49.1%), 정부지원제도 취약(21.9%), 자금조달 어려움(14.3%) 등의 요인을 들고 있다. 투자자를 찾기 쉬운 창업환경, 투자자들이 채권자가 아닌 주주로 참여하여 기업실패의 부담을 분담하는 문화, 창업가에게 담보나 필요이상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창업 생태계 조성이 기업가들의 사업실패부담감을 크게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로, 본 논문에서 객관적 창업환경의 설명변수로 채택한 보육제도 여건도 향후 창업의지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2년 2분기부터 남성을 추월하고 있다. 그러나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크게 떨어져 지속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에서 기인하고 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성의 일자리 및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사회적 보육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 연구과제는 본 설문 표본대상자들을 연령기준에 의해 청장년과 시니어 두 집단으로 나누어 창업환경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 분석을 할 경우 두 집단 간 영향력의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4) 2013년 1월 17일자 전자신문과 오픈서베이의 대학생 대상 창업인식 조사결과 참고

REFERENCES

[1] J. M. Kim & J. P. Park, "A Study on the Model of Entrepreneurship Index", KOSBI Research Paper, Vol 11-05, pp. 1, 2011.

[2] B. Y. Bae, LISREL Structural Equation Model, Chungram, 2005.

[3] J. H. Seo,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Management Education Review, Vol. 43, 2006.

[4] C. S, Sung,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enior Entrepreneurship"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2011.

[5]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Agency, "2010 1st Half Survey on the Korean Senior", 2010.

[6] B. S. Yoon,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n Business Review, Vol.17, No. 2, pp. 89-110, 2004.

[7] J. H. Lee, "A Study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s and Entrepreneurial Decision making",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Vol. 30, No1, 2008.

[8] J. W. Le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KASBS Paper, Vol. 22-1, pp.121-146, 2000.

[9] D. Y. Chung,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Social-Cultural Dimensions",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Vol. 10-1, pp. 59-89, 1999.

[10] B. J. Cho, "Educational Approach and Effective Teaching Method", Management Education Review, Vol. 2-2, pp. 27-48, 1999.

[11] K. S. Ha,,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rom Business Attitude and Fear on Business Failure",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Vol. 19-5, 2012.

[12] J. H. Han, Venture Creation & Management, Seoul: Hongmoonsa, 2012.

[13] J. H. Han & M. J. Lee, "A Study of Korean Start-up Education and it's Improvement,"

Management Education Review, Vol. 17-1, pp. 131-158, 1998.

[14]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 pp. 179-211, 1991.

[15] Bandura, 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 Freeman, 1977.

[16] Boyd, D. P, and D. E. Gumpert, Coping with Entrepreneurial Stress,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pp. 44-64, 1983.

[17] Clark. B. W., C. H. Davis, and V. C. Harnish, Do courses in entrepreneurship aid in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 pp. 26-31, 1984.

[18] Cuervo, A.,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3), pp. 293-311, 2005.

[19] Ernst&Young, Entrepreneurs speak out, A call to action for G20 governments, 2011.

[20] Fishbein, M. and Ajzen, I.,,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NY: Addison-Wesley, 1975.

[21]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 2012 Global Report, 2012.

[22] Gnyawali, D. R & Fogel, D. S,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pp. 43-62, 1994.

[23] Greenberger, D. B. and D. L. Sexton, "An Interactive Model of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6(3), pp. 107-118, 1988.

[24] Harter, S.,,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pp. 87-97, 1982.

[25] Hair, J. F. Jr.,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 Pearson Prentice Hall. 2006.

[26] Knight, F. H., Risk, uncertainty and profit, New York : Harper and Low, 1921.

[27] Kruerger, N. F., et al,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5(5), pp. 411-432, 2000.

[28] Krueger, N. F., and Brazeal. D. V.,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 Theory & Practice, 18(3), pp. 91-104, 1994.

[29] Krueger, N. F., and Carsrud, A. L., Entrepreneurial intentions: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5(3), pp. 315-330, 1993.

[30] Luthje, C. and N. Frank, The Making of an Entrepreneur : Testing a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Engineering Students at MIT, R&D Management, Vol. 33, pp. 135-148, 2003.

[31] Martin. M. J. C., Manag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Reston, VA: Reston Publishing., 1984.

[32] Naffziger, D. W., et al, A Proposed Research Model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pp. 9-42, 1994.

[33] Redding, S. G., The impact of colonialism on the formation of an entrepreneurial society in Hong Kong.1993.

[34] Reynolds, P. D., Predicting New Firm Births : Interactions of Organizational and Human Populations, In Sexton, D. L. & Kasarda, J. D. (Eds.), The State of the Art of Entrepreneurship, pp. 268-297, Boston: PWS-Kent Publishing. 1992.

[35] Shapero, A. and L. Sokol,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1982.

[36] Smeltzer. L. R, and G. L. Fann, Gender Differences in External Networks of Small Business Owner/Manage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7(2), pp. 25-32, 1989.

[37] Vealy, R. S., Conceptualization of sport confidence and competitive orientation,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strument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Psychology, 8, pp. 221-246. 1986.

오 상 훈

- 1984년 8월 :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 1994년 8월 :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과(경제학석사)
- 2011년 3월 ~ 현재 :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 2013년 6월 ~ 현재 : 한국노동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 관심분야 : 기업재무, 창업정책, 거시계량모형
- E-Mail : fundamen@naver.com

하 규 수

- 1998년 6월 : 미국 Touro법과전문대학원 졸업(J.D.)
- 1999년 6월 : Georgetown법과전문대학원 졸업(LL.M.)
- 1998년 8월 : 美뉴욕 주・연방변호사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 E-Mail : ksh@hoseo.edu